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009 - 21
----------	-----------

제안년월일 : 2009. 3. 3

제안자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 위원장 홍승근

1. 제안이유

-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법제화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현실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 수원화성(水原華城)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없이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성곽 내·외와 주민 20여만명의 요구이며, 사업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성역화사업을 법제화하여 국책사업으로 책정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고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원래대로 복원·보존하고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에 미치는 주변 지역을 정비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을 역사적 고증절차에 따라 복원·보존하고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건의문

수원시의회는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의 법제화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현실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원화성(水原華城)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에 대해!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이후 화성 성역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화성성역의 법제화에 의한 원형 복원 및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며

화성 내·외 문화재 보호로 인한 고도제한 등 장기간 재산권 침해로 주민불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성역화사업의 완료가 시급하나 수원시 재정으로 단기간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화성 성역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수십 년간 문화재로 인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성곽 내·외의 인근 주민 20여만명의 피해보상 요구가 예상되고,

또한 화성의 복원을 위해서는 향후 1조 5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복원사업에 정부 및 유네스코의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매년 수원시에서는 자체예산 500억원씩 약 4,94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책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원화성성역화 사업을 법제화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완공
년도는 2020년으로 앞으로 14~15년이 소요되나 화성성역화사업
특별법이 시행되면 목표 연도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으로 수원이 전통문화 도시
로써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속의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화성성역화사업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구분 없이 정부차원의 지원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 3 .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